

IMA 인가 막판 변수… 미래에셋 질주, 한투·NH는 제동

〈종합투자계좌〉

심사 키워드, 자본보다 신뢰
IB 판도 재편 변수령 예고

미래에셋證, 자본·통제 모두 앞서
한국투자證, 신용등급 하락에 흔들
NH투자證, 미공개정보 조사 부담

팽팽하던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 '1호 사업자' 자리 경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순항하고 있는 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이슈가 불거지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A 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접수 이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한 뒤 9월에서야 IMA 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NH투자증권도 심사를 받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신규 종투사 IMA 발행어음 지정 관련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아마 이번달 내에 첫번째 지정사례가 나오



NH투자증권

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달 IMA 사업자 지정이 이뤄지면 8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하게 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들 세 증권사가 1호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신용등급 하락 및 내부 통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가장 느긋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업계 1위의 자본력(자기자본 14조원)과 박현주 회장의 '모험자본' 철학을 내세워 '1호' 타이틀을



한국투자증권

자신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전체 자본의 약 20%를 모험자본에 배정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 감내형 포트폴리오'다. 글로벌 VC 네트워크, 대체투자 경험과 구조화 역량을 통해 미국·유럽·동남아 등 해외 투자 파이프라인도 갖췄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도 강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용등급 하락과 내부 통제 이슈가 불거지며 이중 악재를 겪고 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장기 외화표시채권 등급을 'Baa3'로 하향했



미래에셋증권

다. 이번 등급 강등은 한국투자증권이 점진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사업 모델로 전환하면서 자금 조달 구조가 악화한 점이 주된 원인이다. 무디스는 만기가 1년 미만인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단기 자금을 장기 기업금융 및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는 '자산-부채 미스매치'가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치명적인 신용 리스크는 아니지만, 신뢰에 금이 갔다는 게 증권 업계의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이슈도 불거졌다. 잡음이 커지자 회사는 김성한 사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

(TF)'를 신설,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전사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NH투자증권도 내부 통제 리스크가 불거졌다. 최근 IB(기업금융) 담당 임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통제 혁신 TF'를 신설하고, 전사 리스크 점검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에 나섰다. IB부문에 거래 사전 승인 절차와 검증 프로세스를 새로 도입했고, 임직원 개인계좌 거래 로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확대했다. 아울러 준법감시·리스크 관리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해 현장 통제력을 높였다.

대형 증권사들이 '1호 IMA 사업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IMA가 증권사의 성장을 이끌 미래 먹거리로 꼽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IMA를 통해 수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은행으로 향하던 고객 발길을 끌어올 수 있다. IMA는 만기가 1년 이내인 발행어음과 달리 중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 운용 유연성도 높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노후 기대’ 달라졌지만… 고령층 절반 여전히 ‘생계형 노동’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
단순한 장수보다 ‘즐거는 노후’ 선호
공적연금으로 생계비 충족 어려워
정년 뒤에도 절반 이상 경제활동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여행·취미 활동을 즐기며 경제 활동에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삶에 대한 기대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 세대는 노후 준비가 불충분했고, 이미 은퇴한 세대는 경제적 이유로 경제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했다.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불충분한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세대마다 다른 ‘노후생활’ 기대

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42.4%는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중복응답 없음)으로 '취미활동'을 꼽았다. 여행 및 관광은 28.5%로 뒤를 이었고, 학습 및 자기개발 활동은 5.6%를 기록했다. 노후에도 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도 14.3%에 달했다.

관련 조사에 '여행 및 관광' 응답이 최초로 포함된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여가생활에 대한 기대는 78.8%(취미활동·여행 및 관광·학습 및 자기개발 합계)에서 76.5%로 낮아졌으며, 소득 창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11.9%에서 14.3%로 늘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59세의 경우,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13.7%에서 17.6%로 크게 늘었다.

두 번의 조사 모두 청년 세대(19~39세)는 이후 세대보다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고, 경제활동 지속에 대한 의사는 낮았다. 반면, 은퇴가 가까워진 중장년 세대(40~59세)에서는 은퇴 세대(60세 이상)보다도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가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답변은 은퇴 이후 세대보다도 높았다.

65세 이상 세대에서는 생활비가 부족해질 경우 여가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24.2%(복수응답 허용)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세대의 응답치인 39.6%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65세 이상 세대는 그 대신 식료품·경조사·의료·의료 등에서 우선적으로 비용을 줄이

겠다고 응답했다. 기대 여명이 증가하면서, 고령 세대에서 '즐거운 노후'에 대한 의지도 분명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 ‘노후준비’ 부족…은퇴해도 경제활동 지속

은퇴 이후 세대에서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에 대한 기대와 의지 모두 높았지만, 실제 은퇴를 앞둔 세대의 노후 준비는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세대 응답자 가운데 80% 이상(40~49세 81.2%·50~59세 83.8%)은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2023년 63세 이상 연금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소득을 80만원 전후로 집계했는데, 이는

같은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인 134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데이터처청은 올해 5월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49.4%로 집계했다. 법적 정년(60세) 이후에도 과반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84.4%(생활비 마련 77.9%·용돈 마련 6.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공적 연금 제도가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고령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포스코홀딩스, 1.1조 리튬 투자… 호주·남미 자원 동시 확보

리튬광산·염호 동시 확보
전기차 약 86만대분 물량
원료 자립·밸류체인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리튬자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차전지소재 원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조 1000억원을 투자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우량 리튬 자원 확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호주의 대표 광산기업인 미네랄 리소스가 새로 설립하는 중간 지주사의 지분 30%를 총투자금액 약 7억 6500만달러(약 1조 1000억원)를 들여 인수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포스코홀딩스는 미

네랄 리소스가 서호주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톱티어 리튬 광산인 '워지나 광산'과 '마운트마리온 광산'으로부터 연간 27만톤의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두 광산의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을 반영한 수치로 수산화리튬 3만 7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며, 전기차 약 86만대에 들어가는 분량이다.

호주 리튬 광산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로 광산 경영 참여 및 배당 수익 확보가 가능하며 시장의 본격 성장기에는 리튬 정광 제련사업까지 연계하는 단계적 사업 확장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우량 염수 리튬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포스코

홀딩스는 6500만달러(약 950억원)를 투자해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 내 광권을 보유한 캐나다 자원 개발회사 LIS의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지분 100% 인수를 결정했다.

2018년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주요 광권을 인수한 바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인접해 있는 이번 광권 인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高)품위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추가 자원과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추진 중인 기존 리튬 사업과의 높은 시너지가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 수능날, 전자기기는 두고 오세요”

수험표·신분증 미지참 시 입실 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4174명으로, 올해 수능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진행된다. 전자시계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과서나 참고서를 시험 시간 중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표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학교장 직인이 찍힌 학생증 등이 인정되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장 내 관리본부에서 오전 8시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내 반입이 불가하다.

/이현진 기자 lhj@